

호세아 6:1-6:11 호세아의 경고

1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2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3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것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4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 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5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6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7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8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9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11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 1 절부터 3 절은 백성들의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지는 호세아의 고백 같은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를 호세아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이틀뒤에 다시 살리시고 사흘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회개에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흘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 4 절에서 '아침 안개,' '이슬' 은 나타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깊이 실망하시는 모습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 4-5 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5 절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 6 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오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마태 9:13 절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 7 절 이후의 내용들은 6 절에서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바란다' 라고 하신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나타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백성들에게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7 절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2:16-17 절에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르앗 인근에 아담 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각주 참조).
- 7-9 절 내용을 살펴보면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가는 길 근처에서 강도,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악한 행위에 관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위반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타락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0 절에서, 앞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행위들로 땅이 더럽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다는 분위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 11 절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7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언급하시고, 7 장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